# 기획분석 - 스프링복스의 현재와 예상

말도많고 탈도많은 브리티시 라이온즈는 남아공과의 3번의 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다. 이제 샤크스와 웨스턴 프로비디언스, 사우던 킹스와의 대결이 끝나면 6월 셋째주부터 3번의 대결을 펼쳐야 한다.

브리티시 라이온즈는 이런데, 월드컵 우승팀 스프링복스는 과연 뭘하고 있을까? 지금, 우승의 주역 키커, 퍼시 몽고머리선수는 은퇴했고, 과연 누가 풀백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위키의 스프링복스 사이트에, 남아공 럭비팀의 28명의 대표선수들이 선정되었다. 과연 UK 라이온즈를 과연 상대하기 부족하진 않을지,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프론트 로우
## 정말 독점적이다.

독점적이다. 아무리 남아공 클럽 럭비팀을 이끄는 팀이 샤크스와 불즈라곤 해도, 다른 팀은 보이지가 않는다. 잉글랜드로 간 게리 보타는 아예 부르지도 않고(아니면 할 레퀸즈가 이제 좀 성적이 나아지니 뭔가 있겠지만), 보이는 이름중 그나마 잘 알려진 선수는 존 스미트 뿐이다. 그것도, 그는 원래 후커였지만, 이제 프롭으로 뛴단다. 나머지는 드 플레시스, 카스텐스, 므타와리라(이상 샤크스)가 뽑혔는데...

정말 리그 상위권 적이다. 더 이상의 언급 자체를 불허한다.

## 세컨드 로우
## 얘들로 될까?

빅터 맷필드다. 거의 당연한 수순이지만, 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안드리스 벡커와(스토머스), 배키즈 보타(불즈).

아무리 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선수다.
아니, 팬들 사이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 라인업이 나오는 걸까. 남아공은 역시 너무 강팀이 몰려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가끔 든다.

## 백 로우
## 어디서 구해와도 SS급

백스는 역시 대단하다. 버거, 대니 로소, 주안 스미스, 거기에 샤크스의 주목받는 8번, 라이언 켄코스키까지. 불즈의 스피스도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다.

상위 두팀에서 뽑고, 스토머즈와 치타스에서 한명 데려오니 벌써 국대가 된다니. 라이온즈가 왜려 경험이 아예 없거나, 너무 나이가 드는 라인업 같아 보인다.

## 하프백
## 큰 변화가 없는 4人

지겹다. 웬만하면 나오시는 두 프리어씨, 보직을 10번으로 바꾸시곤 인기가 좋으신 루안 피나씨, 좀 늙은거 빼곤 전혀 낯설지 않은 이름의 리키 재뉴어리씨. 그리고 남아공 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새로 등장한 플라이하프, 몬 스테인씨.

약간 의외라고 한다면, 영국간 데릭 후가드 씨는 없다. 그리고, 몬 스테인씨가 없다면, 골킥을 누가 찰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뭐, 아마추어도 아닌데, 그걸 걱정하겠나..?

## 백스 종합
## 국대용 + 실험적 백업

이건 소속팀이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다. 원래 불려야 할 선수가 불렸다. 잭 푸리, 쟝드 빌리어스, 브라이언 하바나, JP 피터슨. 변화가 있다면 국대에서 은퇴한 퍼시 몽고머리가 풀백에 없다는 것뿐이다.

후보와 풀백을 채우는 데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셀렉션이다. 먼저, 월드컵 때, 피지전에서 +50미터 골킥을 넣은, 프랑스와 스테인 선수가 풀백으로 선정됐다. 그만큼, 킥킹과 땅따먹기를 할 때에도 퍼시 수준의 킥커는 제대로 박고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후보들은 리그에서 활약이 있는 멤버들이 많이 선정이 되었다. 샤크스에선 킥킹이 가능한 센터, 아드리안 제이콥이, 윙들에는 샤크스와 치타즈에서 인정받은 은둥가니와 노키가 이름을 올렸다.

## 그럼 베스트 15은?

필자의 대충 예상을 했던 라인업에 비해, 백스와 백 로우는 그럴듯한 원래 국대가 오셨다. 하지만, 포워드들 중 반 이상이 예상이 빗나갔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니다. 캡틴 존 스미트도 이제 나이가 31살이다. 빅터 맷필드도 나이가 32살이고, 나이가 많은 멤버는 적으면 적을수록 이득이다. 덕분에 꽤 많은 젊은 피가 새로 스쿼드에 들어왔다.

문제는 이 선수들을 국대에 처음 뛰게 하는 데 브리티시 라이온즈와의 대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속 늙어가는 선수들을 뛰게 할 수 없으니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팬들은 이 라인업에 만족하고 있을까?

아직 많은 남아공 팬들은 잭 푸리를 풀백에 넣어야 하나, 아니냐, 그럼 누가 풀백이냐 등으로 이야기가 많다. 특히, 프랑스와 스테인의 능력이 과연 풀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킥킹 게임을 한다면 프랑스와 스테인의 킥은 합격이다. 문제는 태클과 오버래핑 공격 등의 플레이에 전체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10번-15번은 거의 대부분 스위치가 가능하다고 하긴 해도, 급 적응하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든다.

## 그래도, 체면이 월드 챔프팀.

슈퍼 14도, 어떻게 보면, 잘하는 팀들은 잘하고, 못하는 팀들은 죽어라 못한다. 샤크스와 불즈는 계속 우승권이지만, 치타스와 라이온즈는 그렇게 바닥권일 수 없다. 그나마 스토머즈는 중간에 잘 껴서 버티고 있긴 하지만, 라이온즈는 국대로 후보 한명도 올리지 못했다.

어차피 적도 나를 알고 있고, 우리도 적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변해야 한다. 강팀이 항상 강팀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꾸준한 유망주 발굴, 그 유망주들이 노장들의 자리를 메꿔줄 수 있도록 경험을 쌓게 해주고, 성적을 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남아공 팀인 것이다.

슈퍼 14에서, 남아공 팀들은 유독 뉴질랜드 팀에게 약해 보였다. 뉴질랜드 팀 자체가 돌파와 세트피스가 좋은 팀이고, 웨일즈를 기반으로 한 라이온즈도 공격적이니, 수비를 탄탄히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스프링복스는 앞으로도 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프론트 로우의 스크럼 대결, 세트플레이 수비는 연습해 둬야 할 것 같다. 안그러면 언제라도 세계랭킹 1위에서 내려와야 할 지도 모른다. FT

KJ(nrlrugby@paran.com)

# 09-10시즌 전망 - 유럽은 무슨 생각중인가?

이제 유럽 럭비는 오프시즌을 맞이했고, 트레이드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모든 팀들을 전부 다 까발려서 트레이드가 어떻게 됐는지 찾고, 어떻게 트레이드를 진행해 나갈지는 다 할 수 없으니, 그냥 대표적으로 이름값이 좋은 선수들과 하이네켄 컵 8강 팀들 중 페이지가 되는 대로 체크해 보도록 한다.

## 올리 바클리(센터)
## 글러스터 럭비→ 바스 럭비

글러스터의 실패다. 글러스터에게 올리 바클리는 엄청난 실패였다. 글러스터에겐 12번이 킥킹을 다 할 거라는, 그런 올리 바클리적으로 잘 돌아가던 07-08 시즌의 바스 럭비 팀만 보고 그를 사왔다.

결과는 엉망이다. 플라이 하프로 뛰라고 시키니까 다음날 언론에 "나는 10번자리가 불편하다"며 12번으로 뛰길 원했고, 글러스터에는 10번의 라이언 램과 윌리 워커.

올리 바클 리가 글러스터에 준 영향은 엄청나다. 관중 동원은 전체 4위인데, 러킹 에러 2위, 미스태클 개수 1위, 전체 전진 야드 밑에서 2위, 돌파력 밑에서 3위, 오프로드 개수 최하위.

이러니, 07-08시즌 하이네켄 8강팀, 한때 리그 1위팀이, 어떻게 하다보니 리그 상위권에 턱걸이한건 거의 기적적이라고 보고 싶다.(6위) 아니, 아무리 못했다고 해도, 리그 강등만 어떻게든 버티는 워스터 워리어즈와의 시즌 21라운드 경기는 최악이었다. 시즌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이 팀은 기력을 잃었고, 대책이 남지 않았다.

지금 글러스터는 상당히 심각하다. 유망주 라이언 램을 팀에서 방출시키고, 시즌 중에 데려온 카를로스 스펜서도 힘을 못쓰고 있다. 대대적인 리빌딩의 시작이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내가 어떻게 아리?!)

## 로키 엘섬(플랭커)
## 렌스터 럭비→ 브럼비즈 럭비

좋게 평가하면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는' 경우고, 나쁘게 말하면 '얍삽한 선수'라는 생각이 든다.

매그너스 리그, 하이네켄 컵을 통틀어 로키 엘섬은 대단했다. 브럼비즈가 아직도 우승 전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해도, 그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궁금하기는 하다.

고향에 대한 추억이라고 하면 편할지 모르고, 더블린에서의 날씨나 상황 등이 맘에 안 들었을 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나은 계약을 원했을 지도 모른다. 실력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그는 하이네켄 컵 결승의 MOM으로 선정되었다).

여러 의미로, 좋은 럭비 선수가 다시 떠나간다는 것은 아쉽다. 대단히 부러운 선수다. 저런 선수가 잉글랜드와 유럽에도 많아졌음 좋겠다.

## 할레퀸즈 럭비
## ins : 로리 클렉(플라이 하프)
## outs : 드 왯 배리(센터), 앤디 고마샬(스크럼하프)

지난 시즌, 하이네켄 컵 8강 전력분석을 때, 정말 '트위큰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가 의문을 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큰손의 등장이다. 엔트리의 13명을 비우고, 뉴캐슬에서 로리 클렉을 들여온다. 이외에도 2부리그 2위팀 엑스터에서 3명의 선수를, 베드포드 럭비에서 칼 딕킨슨을 사온다. 게다가, 제임스 존스턴(사모아), 곤잘로 카마초(아르

헨티나)를 데려온다.

사실 할레퀸즈는 이번 시즌이 매우 성공적이다. 리그 4강 플레이오프 진출, 하이네켄 컵 4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조별리그 무패의 성적.

뭐가 아쉬워서 쓸모없는 선수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가, 그리고 '이정도면 우리도 좀 하는 클럽이지 않냐'고, 이젠 말할 수 있다. 아니, 유럽 챌린지 컵 결승 경기를 글러스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걸 뺏어왔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 헨리 파'펠리(플랭커)
## 비아리츠 럭비→ 리즈 카네기

럭비 리그의 2002, 2003시즌은 뉴질랜드 워리어즈가 대단한 인기의 팀이었다. 당시에는 스테이시 존스(하프백), 랜스 호하이아(5-8), 브렌트 웹(풀백), 프랜시스 멜리(윙) 등등과 더불어, 헨리 파'펠리는 럭비리그의 '신'이었다.

이후 잉글랜드 슈퍼리그 생활을 시작했다. 워링턴 울브즈로 옮겨와서, 2004~2007 시즌을 92경기 출전, 72개 트라이라는, 만족스런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2008시즌을 준비하고 있던 그에게, 비아리츠는 마팅 게이탄의 부상 때문에 그를 '땜빵용'으로 긴급 공수해서 데려왔고, 그에게는 센터 포지션이 주어졌다. 그의 비아리츠에서의 성적은 실망 그 자체다. 선발 출장은 두 경기뿐 이었고, 그나마도 이렇다 할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에게는 럭킹과, 킥킹을 자주 하는 유니언 식의 럭비에 적응하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당연히 원래의 주종목인 럭비리그에서 뛸 줄 알았다. 그게 당연한 절차인줄 알았다. 할레퀸즈 RL(럭비리그팀)은 헨리를 영입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헨리는 아니었다. 그는 올해 1부리그로 돌아온 리즈 카네기 럭비로 입단했다.

좋은 선택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에게는 그가 호령할 수 있는 럭비리그 무대가 있다. 대체 뭘 믿고 유니언으로 뛰려고 하는지 걱정이 된다. 하지만, 그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그의 주 포지션을 찾는 순간부터, 이 선수는 어떤 변화를 할지 아무도 모른다.

## 프랑스와 스테인(풀백)
## 샤크스 → 레이싱-메트로 92

듣도 못한 클럽이다. 레이싱-메트로라니, 이건 최근 10년간 뭣 하나 자랑할 게 없는 팀이다. 대략 엄청난 과거인 19세기와, 1950년대에, 그리고 1990년대 초에 한두번 우승 해본 적은 있긴 하지만, 그게 언제적 시절인지 모르겠다. 아주 잘 쳐줘야, 올해 1부리그로 복귀하는데, 2부리그 우승을 하면서 올라온단다.

이런 팀에, 남아공 국가대표는 가겠단다. 그것도 2년 계약이다. 가서 설마 하겠지만, 영웅이 되어 꼴등팀을 우승시키는, 그런 신화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 같으면 왜 이딴 팀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퍼시 몽고머리는 파피뇽에 갔다. 댄 카터도 파피뇽에 갔다. 주베르도 ASM 클레몽뜨에 갔다. 죄다 탑 4위팀이다. 근데 뭐가 아쉬워서 최하위팀에 가는 걸까.

아무리봐도 그가 가는 이유는 돈이 아닐까 싶다. 매년 75만 유로(한화 약 13억원)를 받는다. 아내랑 같이 남아공에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뭐가 더 남았을까.

모든 럭비 선수가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자에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보직을 찾아 가는 것이 유일한 성공의 지름길, 일까나.

모두에게 무운을 빈다.FT

KJ(nrlrugby@paran.com)

## Time off.

지옥같은 시간이다. 이 편집본을 쓰고 있는 시점에도, 맘 놓고 럭비를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럭비는 계속되고 있고, 나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크리켓 월드컵이 이미 진행 중인 것이다.
수요일엔 샤크스와 라이온즈 경기를 봐야 하나, 크리켓 월드컵 8강 경기를 봐야 하나.
아니면 둘다 소리를 켜고 밤을 새야 하나.
고민에 고민하고 있다.

## 오늘의 영웅

Joost van der Westhuizen(주스트 반 데 베스티'젠)

지금 이분 나이가 몇 살이신지 아는가?
만으로 38세, 한국 나이로 치면 마흔이다.
정중앙씨와 동갑이다.

2007년 월드컵 때 명예의 전당에 헌액.
38개 트라이는 남아공 최다 트라이,
스크럼하프 포지션에선 최고 트라이 기록이다.

남아공 럭비 사상 최고의 하프백.
아직도 불스 럭비에 소속 및 출전.

그런데, 남아공 투어 스케줄, 6월 16일 경기.
사우던 킹즈와 브리티시 라이온즈 경기.
거기에 쓰여있는 선발 라인업.

그는 하프백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무섭고, 존경스럽다.
도대체 그는 언제까지 뛸 수 있나.
과연 그만한 럭비 선수가 있을 수 있나?

아마도 열정만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이다.

FT

KJ(nrlrugby@paran.com)